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보도일시	2022.2.22.(화) 14:00 이후 사용	배포일시	2022.2.22.(화)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담당자	과장 양상근, 사무관 김형관 (044-200-2074, 2076)

ODA 수원국에 희망을 우리 국민에 행복을 ODA 주요성과 사례집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 발간

- 수원국 주민 체감도 높은 8개 분야, 48개 ODA 사례를 ‘이야기책’ 형태로 소개

< 사례로 알아보는 ODA 주요성과 (사례집 일부 발췌) >

- ◆ [식량]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우리 쌀에 감사를 담다
 - 개도국 식량원조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식량계획(WFP)
 - 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지역의 6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예멘, 라오스, 시리아)에 2018년~2020년 연간 300만명, 2021년 약 422만명 규모 쌀 지원
 -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면서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덜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9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라오스 여성 시엠(Siem))
- ◆ [물·환경] 척박한 몽골사막에 그린벨트 숲이 우거지다
 -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 한국 산림청, 몽골 환경관광부
 - 사막화방지 조림(3,046ha), 양묘장 조성(3개소, 45ha), 도시숲 조성(1개소, 40ha) 등
 -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사막에 산림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오랜 협력관계야말로 성공 요인입니다.”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간수흐 장관)
- ◆ [보건·의료] 위험한 출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 캄보디아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2차)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 뽕삿 도병원 모자병동 신축, 병원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지원, 인력 교육 등
 -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 없이 도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분만 지연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했는데 불안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뽕삿 도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김’)

□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본부장: 김영수)는 출범(‘21.2.25) 1주년을 맞아 그동안 각 기관에서 추진해온 ODA* 사업의 주요성과 사례를 엮어서,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를 발간했습니다.

*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국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증진 등을 목표로 제공하는 원조

- 이번 사례집은 일반 국민이 우리나라 ODA 사업의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이야기책(Story Book)’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관계기관이 보다 내실있는 사업 추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상세한 사업 개요와 정량적 추진성과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 본 사례집은 크게 세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프롤로그에는 불과 반세기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 ODA의 역사와 ODA가 우리나라와 많은 개발도상국들에 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 1부에서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국가에 농업과 물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도로·공항 등 교통·인프라 개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 수원국의 상생과 번영을 도와준 26개 성과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 2부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더욱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 미래 인재양성 프로그램 지원 등 인류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22개 성과사례를 실었습니다.

< ODA 주요성과 사례집 >

구분	주요 내용
프롤로그	▶ 우리나라 ODA 역사, ODA가 우리나라와 수원국에 주는 의미
제1장(상생과 번영)	▶ 식량, 물·환경, 교통·인프라 등 지속가능한 희망을 위한 노력
제2장(인류의 평화)	▶ 보건·의료, 교육·일자리, 재난·안전 등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위한 노력

- 이번 사례집에서는 특히, 우리 ODA 사업의 효과가 수원국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지구 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나라에도 선순환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우리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베트남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네팔 산간·오지 청소년들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원국 젊은 이들에게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는 것과 함께,

- 몽골사막에 그린벨트 숲을 조성하여 황사피해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에콰도르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구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사례 등도 담고 있습니다.
- 김영수 국제개발협력본부장은 발간사에서 “ODA는 70여년전 6.25 전쟁으로 황폐화된 우리나라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고, 그 도움을 바탕으로 선진국이 된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줄 책임이 있다.”면서,
 - “국제개발협력본부는 앞으로도 수원국에 희망을, 우리 국민에게는 보람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K-ODA, 희망이 오다 행복이 오다」는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및 대한민국 ODA 통합홈페이지(www.odakorea.go.kr)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개도국 식량원조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식량계획(WFP)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우리 쌀에 감사를 담다



세계 곳곳에 약 8억 명의 기아 인구가 있다.
내전으로 난민이 되어버린 사람들,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 없는 가뭄으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기난으로 식량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예멘, 라오스, 시리아 등
한국이 쌀을 보낸 곳마다 점심을 굶던 아이가 급식을 먹게 되었다.
난민촌에서 굶던 여성이 따뜻한 밥을 먹게 되었다.

기아인구의 증가에 식량 지원이 절실

국제사회는 기아 종식 등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를 채택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세계 기아인구는 2017년 6.15억 명에서 2020년 7.68(최대 8.11억 명)억 명으로 늘어났을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농업 생산성 향상 지원 외에도 단기 식량 위기 완화를 위한 식량 직접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 그간 우리나라 해외원조의 80%가 인프라 개발에 집중되어 있어 각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었다.

기아가 있는 곳으로 우리 쌀을 보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식량원조협약(FAC)'에 가입하고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식량원조를 추진했다. 2018~2020년 3년간 아프리카·중동지역 4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예멘)에 해마다 우리 쌀 5만 톤을 300만 명에게 지원했다. 2021년 수원국에



라오스 식량원조(2021)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게 되면서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전보다 덜 가난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 9명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라오스 여성 '시엠(Siem)'

라오스·시리아 등 2개국을 추가하여 총 6개국 약 422만 명에게 쌀을 지원했다.
2022년에도 총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한 후 그 성과를 검토하여 2023년 지원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 세대 만에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성장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다

우리나라는 1964년부터 1984년까지 약 20여 년간 WFP로부터 식량원조를 받
던 수원국이었다. 그러나 한 세대 만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
2020년 WFP 내 11위 공여국으로 성장하여 식량원조에 나서면서 개발도상국의
롤모델이 되었다.

세계 기아 해결에 기여하다

특히 2020~2021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쌀을
공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원국의 식량 공급 중단 위기를 해소했다. 이 일로
인해 WFP는 202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고, '데이비드 비즐리' WFP 총재는
'2020 농업인의날' 행사에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라오스 식량원조(학교급식)(2021)



예멘 식량원조(2021)



우간다 식량원조(2021)



에티오피아 식량원조(2019)



예멘 식량원조(2021)

개도국 식량원조사업

1. 추진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식량계획(WFP)

2. 사업 목적 쌀 공급을 통한 세계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한국의 공여국 역할을 확대

3. 사업 지역 및 대상

- 아프리카·중동·동남아시아 지역의 6개국(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예멘, 라오스, 시리아)

4. 사업 기간 및 예산 4년(2018-2021) / 연간 최소 460억 원

5. 사업 내용

- 식량위기국에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원조
- 2018-2020년간 매년 쌀 5만 톤을 연간 300만 명에게 지원하였고, 2021년 약 422만 명에게 지원
- 2022년까지 6개국에 총 5만 톤 규모의 쌀을 지원하고 2023년부터 수원국 및 지원물량 확대 추진 계획

6. 사업 추진 성과

- 식량위기국에 쌀을 공급하여 개발도상국의 식량 위기 완화에 기여
- 원조받던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모범사례로서 우리나라의 공여국 역할을 확대



하수처리시설 건설로 수질도 삶의 질도 바뀌었다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하수 때문에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수인성 질병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데다
우기 때면 홍수를 염려해야 하던 베트남 홍수연시 주민들...

그러나 하수시설이 새롭게 정비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 구축되자
주민들을 괴롭히던 수인성 질병이 사라졌다.
하수 관리가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졌다.

악취, 수인성 질병, 범람으로 고통받다

베트남 롱수옌시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가 없고, 하수와 우수가 모두 도로 변의 우수관로를 통하거나 혹은 직접 인근 하우(Hau) 강으로 유입되어 악취 및 수질오염이 심했다. 또 하천으로 직접 방류되는 하수로 인해 롱수옌시 주민들은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수인성 질병 등에 시달렸다. 게다가 우기에는 배수시설 부족으로 도심에 홍수 피해도 발생하곤 했다.

하수처리시설 및 관리시스템을 만든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베트남 정부와 협력하여 오수관로 총 58.7km, 중계 펌프장 20개소, 하수처리장 2개소를 건설하고, 운영 및 유지를 위한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베트남 남부지역의 모래 파동으로 인해 모래 가격이 폭등하고 품귀현상까지 발생하는 등 모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안지양성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원만하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하수도 보급률 34%, 하수도 연결가구 8,347가구를 달성했다.



베트남 롱수옌시 하수처리사업(전)

“오수시스템은 EDCF 재원으로, 우수시스템은 베트남 재원으로 건설하였으며,
오수와 빗물을 각각 오수관로와 우수관로로 분리·처리함으로써
하수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동아시아부

수질이 달라지고 삶의 질도 달라지다

좋은 물이 가져다 준 건강

현대식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해 공공수역을 보존하고 인근 수로의 수질이 개선되어 롱수엔시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 수질 환경이 깨끗해지자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 질병 발생이 크게 줄어들었다.

효율적 관리로 앞으로도 깨끗하게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사업 주체인 안지앙 전력수도공급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데 하수처리장 운영비용은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74억 동 수준이며, 유지보수 전담 인력은 전기, 토목 등 분야에 약 14명 규모로서 효율적이고 정확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



베트남 롱수엔시 하수처리사업(후)

수인성 전염병 발생

인근 수로의 수질 개선(BOD5)

인근 수로의 수질 개선(대장균)



* 2011년 : 사업심사 시점, 2020년 : 사업 후 운영 본격화 시점

베트남 롱수엔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1. 추진 기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 사업 목적

- 베트남 안자양성 롱수엔시에 분류식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 개선 도모

3. 사업 지역 및 대상 베트남 안자양성 / 안자양성 롱수엔시 내 11개구, 28만 명 규모

4. 사업 기간 및 예산 9년(2011-2020) / 4,600만 달러(유상)

5. 사업 내용

- 오수시스템 건설, 우수시스템 신설 및 개선, 시운전 및 운영 관리자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

6. 사업 추진 성과

- 오수관로 총 58.7km 건설
- 중계펌프장 20개소 건설
- 하수처리장 2개소(각 10,000m³/일, 20,000m³/일) 신설
- 하수처리장 접속도로(697m) 신설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척박한 몽골사막에 그린벨트 숲이 우거지다



갈수록 사막화되어 가는 몽골...
봄이면 휘몰아치는 황사가 주변 나라로 몰려가고
춥고 건조한 날씨, 척박하고 얼어 있는 땅에 나무가 자랄 수 없었다.

그러나 한국이 몽골의 자연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나무를 심기
시작하자 도시 한가운데 도시숲이 생겼다.
사막 한가운데 드넓은 그린벨트가 생겼다.

황사가 몰아치고 사막화되어 가던 몽골

한반도 황사 유입의 최대 발원지인 몽골은 국토의 78%가 사막화된 데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각했다. 이에 몽골 정부는 사막화 및 황사 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한국은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를 악화시키는 황사에 대처하기 위해 황사 발원지인 몽골에 나무 심기 등 다양한 시책에 나서야 했다.

사막 환경에 맞는 기술을 개발하여 그린벨트를 조성하다

산림청은 몽골의 '사막화·황사방지를 위한 그린벨트 조성계획(2005~2035)'을 지원하기 위해 몽골과 공동으로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을 설립하고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했다. 1단계로 급격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사막화 지역(룬, 달란자드가드, 바양작)에 사막화방지 조림(3,046ha)을 하고, 양묘장 3개소(45ha) 및 조림기술교육센터 2개소를 설립했다. 2단계로 수도인 울란바타르에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도시숲(1개소, 40ha)을 조성했다. 또 지속적인 산림 관리



몽골그린벨트조림사업

를 위해 식재기술 등의 기술을 전수했다. 사막에서는 나무가 자라기 힘들지만 기술개발, 관수관정 시설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여 조림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2022년 산불 예방·피해지 복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3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몽골의 사막화 방지에 체계적으로 도움을 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으로 하나가 되었기에 사막에 산림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의 오랜 협력관계야말로 성공 요인입니다.

- 몽골 자연환경관광부 간수희 장관

산림조성으로 몽골의 사막화를 막다

황사피해 및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다

척박한 몽골 사막에 나무심기를 통해 성공적으로 숲을 조성함으로써 몽골의 급격한 사막화를 막고 몽골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숲 조성의 중요성을 일깨우다

몽골 사회에 사막화 방지 및 숲의 중요성을 일깨움으로써 식목일 제정, 토지황폐화 및 사막화방지를 위한 법령 제정 등 관련 법·제도 형성에 기여했다. 또 나무심기와 숲 조성이 몽골 정치인의 주요 공약으로 대두하고 산림청 신설, 대통령의 '10억 그루 나무심기 추진' 선언 등이 이뤄졌다.



몽골그린벨트조림사업

몽골에 피어난 한-몽 우호의 숲

몽골 울란바타르 담부다르자 지역에 조성된 한-몽 우호의 숲은 산림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조성되었다. 만주자작나무, 시베리아 낙엽송 등 약 3만 그루의 나무가 어우러져 도시 속 산림휴양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사막화방지 조림 3개 지역
(룬, 달란자드가드, 바양직)

총 **3,046** ha

울란바타르 도시숲
조성 완료

1개소 **40** ha

한-몽 그린벨트 조림사업

1. 추진 기관 한국 산림청, 몽골 환경관광부

2. 사업 목적

- (1단계) 몽골 정부의 그린벨트 조림 지원을 통해 황사피해 저감 및 사막화 방지
- (2단계) 조림지의 안정적 이관 및 효과적인 관리, 도시숲 조성을 통한 울란바타르 시민의 휴양복지 증진

3. 사업 지역 및 대상 몽골(울란바타르, 룬, 달란자드가드, 바양직) / 지역주민

4. 사업 기간 및 예산 15년(2007-2021) / 245억 원(무상)

5. 사업 내용

- 사막화방지 조림, 양묘장 조성, 조림기술교육센터 설립 및 조림기술 역량 강화, 공동연구, 도시숲 조성 등
- 한국의 성공적인 산림녹화 경험을 전수하고 황사 발원지에서 사막화방지 조림을 통해 황사 피해 저감 및 사막화 방지에 기여

6. 사업 추진 성과

- 사막화 방지 조림(3,046ha)
- 양묘장 조성(3개소, 45ha)
- 조림기술교육센터(2개소) 설립 및 주민·관계자 연수 등 교육·훈련(8,000명)
- 한-몽 우호의 숲(도시숲) 조성(1개소, 40ha) 및 조림지 이관(2,592ha)
- 공동연구 등



천혜의 자원환경을 깨끗한 에너지로 바꾸다



본토와 1,000km 떨어져 있어서 전력 연결이 힘들어
디젤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만큼
유조선 침몰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위험도 컸던 갈라파고스제도

한국의 기술로 천혜의 자연을 가진 그 섬에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천혜의 자연이 전력에너지가 되었다.
온실가스가 줄고 자연이 더 아름답게 지켜졌다.

갈라파고스, 전력 공급의 위기에 빠지다

갈라파고스제도 본토와 1,000km 떨어져 있어 전력선 연결이 어렵기 때문에 디젤발전기로 전력을 공급하는데 유조선 침몰 등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사고 발생 위험이 항상 존재했다.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갈라파고스제도 화석 연료 제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자본이 부족하여 정책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한계에 부딪혔다.

천혜의 섬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구축하다

2016년 에콰도르 생산고용조정부 ‘셀리’ 장관은 한국 방한 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의 미팅에서 한국 정부에 갈라파고스제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갈라파고스제도 산크리스토발섬에 1MWp 태양광, 2.2MWh 배터리 시스템, EMS로 구성된 MG 시스템을 구축하는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후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초청 연수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지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에 따라 통행이 제한되고, 인력 수급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안전한 공사 현장을 만들어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 ODA팀

자연이 준 에너지로 전력공급, 온실가스 감축

안정적인 전력, 모두의 에너지가 되다

갈라파고스제도 산크라스토발섬에 구축한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은 변동성이 심한 태양광 발전 출력을 배터리 시스템이 보완해 주어 상대적으로 발전원 변동성에 취약한 섬 계통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또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를 원하는 시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심하고 쓰는 에너지, 더 널리 퍼져나가다

에콰도르 에너지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갈라파고스제도에서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라 평가하였고, 동일 모델을 에콰도르 본토에도 이식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시스템의 운영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초청 연수를 실시한 결과 현재 현지에서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운영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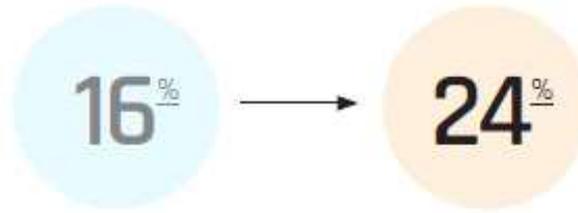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전)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사업(후)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산화탄소
1,274.93 [tCO₂/년] 감축

에콰도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1. 추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사업 목적

- 한국형 에너지 자립섬 모델(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내 산크리스토폴섬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16%에서 24%까지 높이고 온실가스를 1,274.93[tCO₂/년] 감축

3. 사업 지역 및 대상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제도 내 산크리스토폴섬 / 섬 내 인구 약 8,000명

4. 사업 기간 및 예산 4년(2018-2021) / 70억 원(무상)

5. 사업 내용

- PV 1MWp, ESS 2.2MWh 설치, 발전시스템 제어 및 인터페이스용 EMS 개발 및 설치 등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 운영·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및 초청 연수 실시
- 국내 전문가 현지 파견으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 양성 지원
- 사업 종료 후 원격 모니터링 및 점검 시스템 구축으로 사후관리 지원

장애 청년이 꿈꾸고 사회적기업이 성공하는 사회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이미지터'는
장애 직원들의 ICT 활용 능력 부족, 자금 및 인프라 부족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 장애인에게 IT 교육기회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정보격차가 해소됨에 따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장애 직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었다.
매출이 성장하고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장애인 정보 격차로 취업마저 막혔던 상황

베트남은 ICT 발전지수가 낮은 데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ICT 접근성이 낮았다. 장애인의 PC 보유는 비장애인의 절반 수준이고 대부분 PC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있다 보니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ICT 활용능력을 개발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기업인 '이미지터'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많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지만 필요한 설비 구입 자금과 인프라인가 부족하여 사업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미지터(Imagtor): 직원의 4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사진과 영상 편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과 함께 장애인 정보격차를 해소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의 이미지터가 사업 수혜 기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이미지터와 협력하여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작업환경 구축, 장애인에게 IT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해소 지원사업

교육기회 및 기업특화 교육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 지원 등이 주 내용이었다. KOICA의 재정지원을 기반으로 장애인 재활협회 및 베트남 이미지터 등 좋은 파트너기관과 함께 발로 뛰어 이미지터의 성장과 이미지터 직원들의 근무환경 및 복지 개선을 실현할 수 있었다.

**"ICT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동기부여와 용기를 북돋아주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싶습니다."**

- 이미지터 창업자 '응우옌 티 반(Nguyen Thi Van)'

이미지터,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다

회사가 커지고 매출이 성장하다

2016년 말 10명이 채 안 되는 직원과 중고PC 6대로 시작한 이미지터는 2019년 5월 기준 직원수 65명(장애인 직원 32명), 월평균 매출액 성장률은 약 1,957%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게 되었다.

중견기업의 면모를 갖추다

2017년 UN 지속가능성 및 싱가포르 NUSDPS 사회적기업 발굴 콘테스트 7개 분야 중 디지털, 교육 및 엔터프라이즈 등 3개 분야에서 수상하고, 2018년 덴마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크 이미지·영상 편집시장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Pro-Plan과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해 국내 민간 임팩트투자사 MYSC의 투자도 유치하는 등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이미지터 장애인 직원 ICT 활용능력 향상

사전 테스트 대비

50%[↑] 향상

자격증 응시자 중 합격자

76.9%

단계별 수료자 중 상급단계 진출자

97.75%

베트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1. 추진 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사업 목적

- 베트남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접근가능한 ICT교육환경 구축,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ICT보호작업장(사회적기업) 지원, 취업 및 창업기회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ICT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참여 및 삶의 질 개선

3. 사업 지역 및 대상 지역

- 베트남 하노이시 6개 현(후앙마이, 자랑, 타잉수안, 동안, 푸수웬, 슌손) / 베트남 사회적 기업 '이미지터(Imagtor)' 및 15-60세 장애가정 청소년 1,095명

4. 사업 기간 및 예산 3년(2015-2017) / 10억 4,1000만 원(무상)

5. 사업 내용

- 베트남 장애인과 지역사회를 위한 접근가능한 ICT 교육환경 구축,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ICT 보호 작업장(사회적기업) 지원, 취업 및 창업기회 마련

6. 사업 추진 성과

-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이미지터' 매출 성장 및 중견기업으로 발돋움
- 이미지터 장애인 직원 ICT 활용능력 등 정보역량 향상

히말라야 구석구석까지 교육의 기회를 전하다!



전 세계가 디지털 혁명으로의 전환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의 기회도 ICT교육도 얻지 못한 채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던 네팔의 산간오지 사람들...

그러나 노트북, 빔프로젝트 등을 갖춘 이동형 정보화 교육 차량이
히말라야 구석구석 찾아와 줌에 따라
산간오지에서도 ICT 교육의 기회가 생겼다.
꿈을 꾸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교육, ICT 교육 취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네팔의 교육은 큰 위기에 빠졌다.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재원이 부족해서 공교육이 취약했는데, 코로나19가 닥치자 도농 간,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더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세계가 디지털 혁명의 전환기를 맞이했지만 네팔에서 ICT 교육은 소수에게만 허락된 '기회의 창'이었기에 이러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산간·오지까지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를 운영하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네팔 과학기술원 실무진과의 정례적인 주간미팅 등 지속적인 협의체계를 가동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정보화 기자재(노트북,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등)를 갖춘 차량 기반의 이동형 정보화 교육시설을 제작·지원했다.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는 히말라야 산간·오지까지 찾아가서 빈곤 계층에게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 개조 작업

“공교육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산간·오지까지 찾아가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ICT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포용 실현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글로벌협력사업팀

교육의 기회와 함께 희망을 전하다

공교육, ICT 교육의 기회를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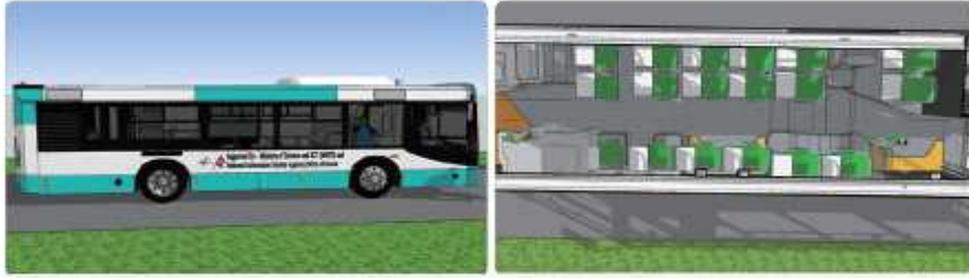
네팔 전역 7개 연방주(federal state)를 대상으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그간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히 ICT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네팔의 산간·오지, 빈곤계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함께 전하다

사업의 주된 대상은 특히 청소년이었다.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된 채 정보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진 산악·오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네팔 구석구석을 찾아가는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를 통한 ICT 교육은 단순한 교육 기회를 넘어 새로운 꿈과 희망의 토대가 되어 주었다. 더 나아가 네팔 과학기술원은 공립학교의 과학 교사들에 대한 ICT 과정을 개설하고 7개 지방 주도(Capital)부터 산악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교육을 진행해 나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를 활용하여 네팔 전역 7개 연방주(지역)의 디지털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립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등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지털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 네팔 자체 도안

공립학교 학생 대상 디지털 교육 목표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사업

1. 추진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2. 사업 목적
 - 손쉬운 인터넷 접근 및 정보화 교육을 통해 글로벌 정보 격차 해소
 -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개도국과의 우호적인 협력관계 구축
3. 사업 지역 및 대상 네팔 카트만두시 / 네팔 과학기술원
4. 사업 기간 및 예산 2020 / 1억 5,6000만원(무상)
5. 사업 내용
 - 정보화 기자재(노트북, 빔프로젝트, 전자교탁 등)를 갖춘 차량 기반의 이동형 정보화 교육시설을 제작·지원
 - 산간오지에 위치하여 ICT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보화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교육의 기회 제공
6. 사업 추진 성과
 - 이동형 정보접근센터 제작 및 인도를 통한 네팔 정보이용 환경 개선
 - 이동형 정보접근센터를 활용한 지역적, 경제적 소외계층에 ICT 교육 제공
 - 한국의 지원에 대한 현지의 지대한 관심 및 감사 표명
 - 한국과 수원국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 구축

위험한 출산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아이를 낳기 위해 멀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제대로 된 분만 시설도 없이 열악한 공간에서
전통 산파의 손에 몸을 맡겨야 했던 캄보디아 서부지역의 여성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원으로 도내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그녀들의 분만이 안전해졌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해졌다.

열악했던 캄보디아 서북부 여성들의 삶

캄보디아 서부의 바탐방, 파일린, 뽏삿 지역은 보건의료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열악해 임산부들이 출산 시 극심한 불편을 겪고 더 나아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접근 가능한 보건시설은 분만실로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협소했으며, 필수 의료장비와 숙련된 조산사가 부족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다.

보건환경 및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의 1차 캄보디아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2011~2016년)을 통해 바탐방 지역 모자보건 시설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 주변 지역인 뽏삿과 파일린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었다. 이에 캄보디아 정부의 요청으로, 뽏삿과 파일린 지역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캄보디아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2차 사업)을 추진했다.

KOFIH와 뽏삿 도는 2017년부터 인프라 구축, 의료인력 역량 강화, 거버넌스 강화 등을 통해 모성·자녀 건강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2020



뽏삿도 병원 모자병동

년 KOFIH의 지원으로 뽏삿 도병원의 분만실과 신생아 진료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산모·신생아 돌봄 건물'을 신설했다.

“다른 지역으로 갈 필요 없이 도병원에서 분만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분만 지연으로 제왕절개를 해야 했는데 불안하지 않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요.”

- 뽏삿 도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킴'

그녀들의 삶이 달라지다

뽏삿 도병원 모자병동 신축으로 분만환경 개선

뽏삿에 도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입원 및 분만, 사후 관리 과정에서 숙련된 조산사의 도움으로 안전한 출산이 가능해졌다. 32세 '킴' 씨(뽏삿 도에 거주)는 도병원의 새로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 중 분만 지연으로 제왕절개를 통해 건강한 아기를 출산했다.

지역병원의 의료서비스 품질 개선

모자보건 사업을 통해 뽏삿 도 바칸 전원병원의 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또 병원 인력을 한국에 초청하여 역량 강화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실시했다. 그 결과, 뽏삿 바칸 전원병원이 2019년 캄보디아 병원 평가대회에서 1차급 국립병원 중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



모자보건서비스로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한 산모

신생아 집중치료실 내 신생아 사망 비율 감소

모자보건 서비스 품질 평가 점수* 향상



* 캄보디아 정부에서 관리하는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을 평가하는 지표

캄보디아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 증진사업(2차)

1. 추진 기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
2. 사업 목적 보건의료체계 및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모자보건 증진
3. 사업 지역 및 대상 지역
 - 캄보디아 서북부 3개도(비탐방, 파일린, 뽏삿)
 - 1차 수혜자: 가임기 여성 164,278명 및 5세 미만 아동 124,734명
 - 2차 수혜자: 3개도 주민 약 170만 명
4. 사업 기간 및 예산 5년(2017~2021) / 135억 4천 1백만 원(무상)
5. 사업 내용
 - 지역사회 기반 활동(지역주민 인식개선 및 보건요원 훈련 등), 모자보건 서비스 강화(보건의료 인력 교육, 영양 개선,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전달 및 거버넌스 개선
 - 지역사회 참여 및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포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캄보디아 국가 보건전략 계획 이행 지원
6. 사업 추진 성과
 - 캄보디아 신생아 사망 감소 활동 모델 구축(도병원 신생아 관리팀 운영 등)
 - 캄보디아 모자보건 서비스 품질 향상
 - 산모 및 신생아 보건 증진을 위한 감염병(코로나19 등) 대응 지원
 - 보건의료 서비스 인력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

2인 3각의 협력으로 기술대학을 일궈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버리고 도이 머이(시장 경제)를 선택한 베트남
그러나 연 6.5%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기술인력을 길러낼 직업훈련 교육이 필요했다.

한국과 베트남이 함께, 교원역량강화, 기술교육 체계 개선,
고급인력 양성공급(취업연계)의 삼 박자로 노력한 결과
대표적 산업기술대학을 일궈냈다.
우수한 졸업생들을 산업현장에 배출하게 되었다.

고도 경제성장 이끌 산업기술인력 양성이 필요

베트남은 도이 머이(시장경제) 채택 후 연 6.5%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해오던 중 2011년부터 특히 산업경제발전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양적·질적 확대에 중점을 두기 시작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된 직업훈련 교육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었다.

수원국과의 2인 3각 협력으로 산업기술대학 건립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베트남에 고도화된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여 경제 발전을 견인할 인적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1~3차)을 추진했다. 2007년에서 2019년까지 13년에 걸쳐 한베 산업기술대학을 설립하고 4년제 기술대학교로 승격한 데 이어서, 직업훈련 교육 전문성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베트남의 산업기술 인력을 더 많이 더 우수한 수준으로 길러낼 수 있었다.

3차 사업에서는 고가의 기자재를 지원하기보다는 현지 산업체 니즈를 파악하고, 한베 산업기술대학 관계자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기자재를 선정하고 현지에서



용에안 한베 산업기술대학 자동차분야

주도하여 검수하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자재 관리를 해나가도록 했다.

“노후화된 기자재를 교체해 교육범위가 넓어지고 교육기술이 향상되었으며,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한국 전문가 간 동료교육(Peer Education)으로 교육내용을 공유하면서 시너지 효과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경험 전수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베 산업기술대학교 총장

고급 인재 배출로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

베트남 대표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다

한·베 산업기술대학은 고급 기술인력 배출이라는 명확한 목표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업 전 과정에 핵심 사업주체로 역할을 다했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 국가중점지원학교로 선정(2014)되고 주석으로부터 노동훈장(2018)을 수여받는 등 대표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인재, 베트남의 미래 디딤돌로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있는 졸업생을 배출해냈다. 교원역량강화, 기술교육 체계 개선, 고급기술인력 양성·공급(취업연계) 삼 박자를 맞춰 직업훈련 역량강화 지원 효과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현지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고급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베트남 사회발전에 기여했다.



5G 드림 제과제빵



용에안 협력활동

향후에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WFK(World Friends Korea) 봉사단 파견 등을 통해 대학의 역량개발과 지원된 건물·기자재 등의 유지·관리 등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지원사업(1~3차)

1. 추진 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

2. 사업 목적

- 한베 산업기술대학의 직업훈련 여건 개선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숙련 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기여

3. 사업 지역 및 대상 지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응에안성 빈 시 / 한베 산업기술대학교

4. 사업 기간 및 예산 13년(2017-2019) / 600만 달러(무상)

5. 사업 내용

- (1차) 한베 산업기술대학 설립
- (2차) 한베 산업기술대학 4년제 승급
- (3차) 한베 산업기술대학 직업훈련 교육 전문성 강화

6. 사업 추진 성과

- 2018년 졸업생 874명 중 797명, 약 91.2%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졸업 후 바로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능력있는 졸업생을 배출
- 교육과정 적합도에 대한 설문조사 시 91.8%가 '그렇다'고 답함
- 졸업생을 고용한 고용주의 만족도도 100%로 '매우 만족'을 기록
- 교사역량강화 지원을 통해 한베 산업기술대학 교사 56명은 교수법경진대회, 지역 과학연구 경진대회, 국가교수지원 경진대회 등 유수의 경진대회에서 수상할 만큼 뛰어난 역량을 가진 교사인력을 보유